

김성균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 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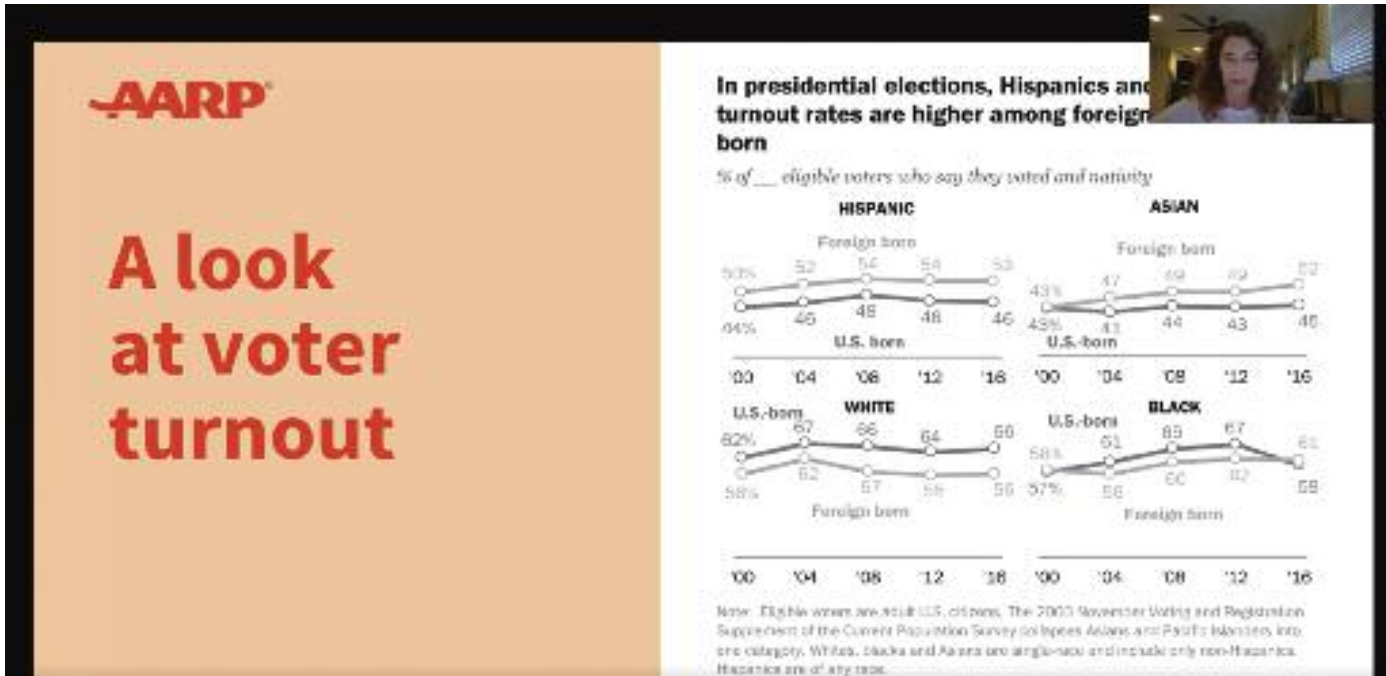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www.clas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미국연방인협회(AARP)가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안젤라 호튼 AARP 소수민족연구 수석연구고문이 50대 이상 아시안 유권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안 50대 유권자중 한인들 인종차별에 가장 민감

AARP 아시안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50대 이상 아시안 유권자 가장 큰 관심은 헬스케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50세 이상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전국 설문 조사의 결과, 유권

자의 93%가 헬스케어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연방인협회(AARP)가 해리스(Harris)

여론조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20년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 설문조사에서 아시안들은 다음으로 일자리와 경제(89%)를 중요한 이슈로 꼽았다.

한인들은 두드러지게 인종차별 문제를 더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다. 21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6면으로 계속

보스톤 주택 광풍 지속 9월 판매 32% 폭증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지역 주택 시장이 8월에 이어 9월에도 뜨겁게 달아 올랐다. 9월 주택판매는 지난해 해에 비해 30%이상 급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레이트보스턴부동산협회의(GBAR)가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지난해 9월에 비해 12.4% 상승한 \$680,000에 달했다. 주택 판매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2.3%가 올라 주택구매 광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GBAR의 주택가격은 판매가 완료된 집들의 평균가격을 집계한 것이다.

단독주택만큼은 아니지만 콘도시장의 판매도 19%나 상승했으며 평균가격도 7.7% 오른 \$592,500을 기록했다.

이같은 집값의 상승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더 많은 방이 딸린 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또한 여전히 3% 이하 ▶▶8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보스톤 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l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21 CENTURY 21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진
주최 | 콘도 | 커머셜
성실함 도와드리겠습니다

CENTURY 21
REALTOR® 아일린 박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장우석)는 지난 10월 10일 토요일 10시 우변에 위치한 혼폰드(Horn Pond)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동포화합의 주제로 걷기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한인회, 코로나 극복 걷기 한마당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장우석)는 지난 10월 10일 토요일 10시 우변에 위치한 혼폰드(Horn Pond)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동포화합의 주제로 걷기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본부석에 행동수칙을 게시하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진행된 걷기 한마당 행사는 모두 50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하게 12시 30분에 종료됐다.

행사장에는 보스톤 총영사관 박

육현 영사와 한미노인회 윤철호 회장, 이기환 이사장이 참석하여 한동안 땀뻘뻘한 한인사회에 첫 대면행사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었다.

행사에 참가한 한 노인은 “지난 7개월간 코로나로 인한 억압의 삶을 탈출시켜준 매사추세츠 한인회에 감사한다. 거기에 큼직한 홍삼상자까지 안겨 주어 벌써 마음부터 보약효력이 나온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장우석 회장은 “작년에는

연말에 동포들이 모여 실내에서 파티를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어려울 듯하여, 밖에서 춥지 않을 때, 육체적, 정신적으로 기력을 재정비하여 지친 2020년을 싸마무리하고, 힘찬 2021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동포들을 위해 기획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재단, 정관장 그리고 보스톤총영사관이 후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작년 11월 19일 뉴장수갈비에서 개최된 한인회 고문단회의 모습

매사추세츠 한인회 고문단 모임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장우석)는 회칙에 의거 고문단 모임을 10월 23일 금요일 저녁 6시 우변 소재 크라운 호텔 스포츠바 &그릴에서 개최한다.

매사추세츠 한인회 고문단은 이날 선거관리위원 7인을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문단 모임에 대한 문의는 한인회

김영기(32대 회장) 또는 조영태(33,34대 회장)에게 할 수 있다.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을 위한 고문단 모임

일시 :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저녁 6시

장소 : 우변 크라운 호텔 내 스포츠바 &그릴

bostonkorean@hotmail.com

AACA 무료 시민권 준비수업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아시아아메리칸 시빅 어소시에이션 (Asian American Civic Association, AACA)에서는 10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무료 시민권 준비수업을 진행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2시간씩 진행되는 이 강의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시민권 취득에 관심 있는 한인들은 617-426-9492로 연락하면 된다. AACA에서는 태블릿이 필요한 경우 대여하기도 한다.

bostonkorean@hotmail.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 *신경 치료 *보철 전문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평통 사행시 공모전, 푸짐한 상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회장 한선우)가 <평화통일>을 주제로 사행시 또는 이를 주제로 한 모토 문구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1등 1명, 2등 2명 3등 30명을 선정하며, 입상한 한인들에게 최소 \$30의 상품을 제공한다. 1등은 \$100, 2등은 \$50을 수상 받는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기간은 10월 24

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하며 사행시와 모토 문구를 boston-nuac2020@gmail.com에 보내 응모할 수 있다. 응모시에는 성함과 주소를 명기해야 한다. 공모에 대한 질문은 서영애 준비위원장(978-807-1622)에게 할 수 있다.

입상자는 11월 20일 보스톤코리아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제목 : 평 화 통 일 사행시, 모토문

구 공모전

응모 방법: <평화통일>로 사행시 혹은 평화통일을 모토로 한 문구 (예: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 2개 다 응모가능

응모기간: 10/24 - 11/11

상금: 1등 1명 \$100

2등 2명 \$50

3등 35명 \$30

bostonkorean@hotmail.com

최광철 KAPAC 대표 통일강연회 성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보스톤협의회(회장 한선우)는 10월 17일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대표를 초청해 <한반도 평화 디아스포라 공공외교>란 제목의 통일강연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통 운영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최광철 대표는 공공외교의 개념 및 역사와 분류 등을 설명하고, 해외 동포 디아스포라가 주체가 되는 평화 공공외교의 중요성 과 미 대선 이후 한반도정책에 대해서도 전망하며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특히, 최광철 대표의 지난 몇 년간 연방의원들과의 교류 속에서 얻어진

현장의 실천경험을 토대로 해외 인적네트워크의 가치, 실천적 평화활동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설명했다.

이날 강연에는 100여명의 전세계의 민주평통위원들과 재외동포들, 그리고 많은 차세대학생들의 참여로 강연 후에도 질의문답이 줄을 이었다.

최광철 대표는 “소중한 자산인 재외동포가 주체가 되는 공공외교, 전세계에 공헌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가치, 해외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모국의 해외진출에 발판이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장수인 보스톤 평통 수석부회장은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 대표의 강연은 차세대 젊은이들의 통일공감대형성과 디아스포라 재외동포들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실천적 공공외교 전문가의 강연회였다” 고 밝혔다.

뉴잉글랜드포럼, 미국내 인종차별 주제 강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서울대 동창회 뉴잉글랜드 포럼이 10월 31일 토요일 오후 7시 “노예에서 차별로-미국내 인종주의:흑인 역사와 아시안 이민의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를 주제로 개최된다.

박찬호 박사가 강연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 흑인의 250년 노예 역사를 돌아보며 흑인들의 삶, 민권 운동, 아시안 이민 역사, 우리 이민 세대와의 연관 등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본다.

박찬호 박사는 250년 흑인들의 미국사회의 기여, 노예 해방 후 흑인들의 삶, 흑인 민권운동, 아시안 이민역사와 흑인 역사 비교, 아시안들의 기여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강연한다.

박찬호 박사는 1975년 미국에 이민하여 병리학자로 다양한 병원과 의료 사업체에서 근무했으며 2014년 은퇴 후 보스톤에 정착했다. 박 박사는 이후 흑인 역사와 아시안 아시안 이민역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

심을 갖고 연구했으며 이를 주제로 몇 차례 강연을 갖고 있다.



박찬호 박사

뉴잉글랜드 포럼은 동문은 물론 관심 있는 모든 한인 동포들에게 열려 있다. ZOOM 포럼에 실시간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메일 (snuaane@gmail.com)로 참여 신청을 하거나,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웹사이트 오른쪽 상단의 ZOOM 버튼을 누르면 된다.

<https://www.snuaane.org>

뉴잉글랜드 포럼의 다음 강연으로는 11월 둘째 토요일인 14일 포럼에는 장용복 박사의 ‘한국서에서’, 넷째 토요일인 28일에는 최석기 박사의 ‘과학으로 푸는 근대 서양사’가 계획되어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추석엔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행사기간: 9/4(금) ~ 10/4(일)



요즘이니까
면역력
추석이니까
정관장

요즘처럼 면역력이 소중한 때가 없습니다.
추석처럼 정관장이 반가울 때가 없습니다.

영업시간안내

10:30am - 6pm

문자 : 312-493-6677

이메일 : kgcboston@gmail.com

(문자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추가증정



3+1

자녀제품 1박스 구입시
10포 추가 증정



\$250 이상 구입시
홍삼원골드 1박스 증정



**최고의 홍삼제품으로
가족의 면역력을 지켜주세요!**

원료 관리 단계부터 제조, 제품의 완성 단계까지 8년의 시간동안 290여 가지가 넘는 항목의 안정성 검사를 7회에 걸쳐 시행합니다.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전화로 주문 후 집에서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할로윈의 메카, 샬럼 올해는 이벤트 대신 강력한 모임 제한

사업체 영업은 오후 8시 종료, 주차장은 2시까지 입장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각종 할로윈 이벤트로 할로윈의 '메카' 역할을 담당했던 샬럼시가 올해는 할로윈에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샬럼 김 드리스콜 시장과 찰리베이커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사업체 조기 영업마감, 주차제한, 제로 이벤트 등으로 할로윈 방문객을 제한할 방침이다.

드리스콜 시장은 "각종 컨서트, 거리 퍼레이드, 각종 할로윈 이벤트 등 모든 이벤트는 취소됐다." 고 밝혔다. 드리스콜 시장에 따르면 향후 2주동안 금, 토, 일 주말 동안 주차장은 오후 2시까지만 차가 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일일 방문자들을 줄이기 위해 샬럼역에서의 커뮤니티얼 정차수도 줄였다. 모든 영업점도 주말에는 8시에 영업을 조기 종료해야 한다.

다. 평상시 10월의 샬럼은 세계 할로윈 축제의 중심지로 수십만의 관광객들이 찾아 들었고 각종 이벤트가 끊이지 않았다. 1692년 마녀사냥으로 인해 할로윈의 중심지가 된 샬럼은 세계의 관광객들을 환영하며 반기지만 "단 올해만은 참아달라"는 것이 드리스콜 시장의 당부다.

베이커 주지사도 특별히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실내 파티와 야외 할로윈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

다. 야외 트릭코트리팅(trick or treating)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이는 소수의 그룹으로만 꼭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해야 한다는 것이 베이커 주지사의 말이다.

주지사는 올해들어 2백50만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감염검사를 받았으며 최근 7일 평균 감염검사당 양성확진율을 1.3%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지사는 지난 한달 동안 대부분의 양성확진자들은 19-39세 사이의 젊은이들이었다며 젊은 세대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베이커 주지사는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도 하지 않은 채 친구들과 모임을 갖는 것"에서 감염이 확산된다고 젊은이들도 심각한 증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위험한 노년층에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반복해 강조했다.

주정부는 현재 샬럼시와 공조하에 사업체들에 대한 바이러스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베이커 주지사는 다가오는 핑스기빙과 관련해서는 "여행을 삼가는 해가 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샬럼 김 드리스콜 시장과 찰리베이커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조기 영업마감, 주차제한, 제로 이벤트 등으로 할로윈 방문객을 제한할 방침이다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정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정선경 Sun Kyung Jung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김수정 Soojung Kim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hsb@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서울장터
SEOUL JANGTEO

서울 유명호텔의 **중화요리 Chef** 를
초빙하여 뛰어난 맛으로 보답합니다.

깊은맛의 **국밥**은
오랜 향수를 달래줍니다.

대표메뉴

- 순대국밥
- 돼지고국밥
- 소고기국밥
- 짜장면/짬뽕
- 탕수육/깐풍기
- 양장피/팔보채

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 (617) 254-2775
(구) 북경 in Allston



연방정부 대신 주정부 스몰비즈니스에 최고 7만5천불 그랜트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 주정부는 5천1백만 달러 규모의 그랜트를 만들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스몰비즈니스 및 주요사업체들에게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5인 이하 사업체는 최고 2만5천불, 50인 이하 사업체는 최고 7만5천불까지 그랜트를 받을 수 있다.

연방의회와 백악관의 부양안 협상이 계속해 진행되며 실제 도움을 주지 않고 있자, 위기에 내몰린 주내 스몰비즈니스에게 그랜트를 통해 숨통을 열겠다는 것이 주정부의 의지다.

이번 스몰비즈니스 그랜트는 준정부기관인 매사추세츠그로스캐피탈(Massachusetts Growth Capital

Corp.)을 통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3주간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5인 이하 사업체는 최대 \$25,0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0인 이하 6인 이상의 사업체는 최대 \$75,000까지 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소유주가 매사추세츠 지역 평균 소득의 80% 이하의 소득자여야 한다.

비록 신청기간은 3주 동안이지만 신청은 빠를수록 좋다. 지난 봄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2천만불을 들여 저리 대출을 제공했는데 단 하루만에 모든 자금이 바닥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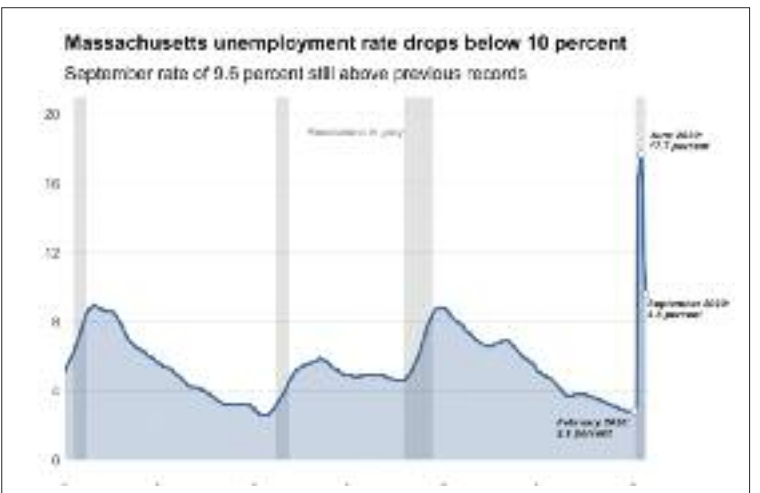
그랜트는 반드시 렌트, 직원 고용비, 유틸리티, 테크니컬 어시스턴트

등 사업체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MGCC의 이사회 일원이자 매사추세츠 지역개발회사협회 조크리스버그 대표는 “주정부가 커뮤니티에 그랜트를 공급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으로 환영한다.” 고 밝혔지만 그랜트 자금이 많지 않은 관계로 얼마되지 않아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크리스버그 대표는 약 60여 비즈니스 단체의 서명을 받아 매사추세츠 의회에 스몰비즈니스 보조로 1억달러를 배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21일 보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실업률 마침내 10% 이하로 떨어져

(보스턴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매사추세츠 실업률이 9월 9.6%를 기록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침체 이후 처음으로 10% 이하로 떨어졌다.

주 근로및인력개발청(EOLWSD)의 16일 발표에 따르면 9월 실업률은 8월 11.4%에서 1.8% 하락했으며 지난 6월 17.7%으로 미국내 최고 실업률을 기록했을 때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매사추세츠는 여전히 미국 전체 실업률 7.9%에 비해 여전히 높았다.

EOLWSD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는 지난달 3만7천명의 일자리를 회복했으며 지난 8월 6만2천명의 일자리가 회복된 데 이어 연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9월 업종별 고용상황을 보면 교육과 헬스케어, 레저 및 호텔업계 등에서 많은 일자리가 회복됐으며 무역, 교통, 유틸리티 부분에서도 상당수 일자리가 회복됐다.

매사추세츠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5만1,800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대부분의 실업은 교육, 헬스케어 레저 및 호텔 등의 분야에서 발생했었다.

hsb@bostonkorea.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밤10시까지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LIHEAP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소득이 매스주 평균소득의 60%가 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겨울철 난방비 높아지지만 기름값은 싸져

경유 난방의 경우 10% 정도 절약 가능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올겨울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 난방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유난방을 이용하는 가정들은 그나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에너지정보청의 예측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약 10%, 프로판 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은 14% 정도의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그러나 천연가스의 경우 6%, 전기 난방의 경우 7%가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특히 경유 난방이 많은 뉴잉글랜드 지역의 경우 세계적인 석유 가격의 하락으로 많은 혜택을 보게 될 전망

이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뉴잉글랜드 지역 약 20%의 가정이 현재 경유를 이용한 난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 석유시장 등의 불확실성이 심하기 때문에 전국에너지보조디렉터스협회는 의회에 43억달러의 추가 가정 에너지보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마크 울프 씨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난방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추가 보조금은 그나마 위험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약 7가정 중에 1명의 가정이

냉, 난방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적인 에너지 보조 없이는 더 많은 가정이 난방비를 부담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LIHEAP로 알려진 연방정부저소득난방보조프로그램은 동북부지역처럼 추운 지역의 난방이나 애리조나와 플로리다처럼 더운 지역의 난방 보조비를 지급하며 총 6백만명에 걸쳐 지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케어스 법안에서 보충된 9억달러를 비롯 총 37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다.

LIHEAP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소득이 매스주 평균소득의 60%가 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https://hedfuel.azurewebsites.net/> 관련 정부기관 리스트 중 자신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다.



아시안 50대 유권자중 한인들 인종차별에 가장 민감

▶▶1면에 이어서

여론조사 분석을 발표한 안젤라 호튼 AARP 소수민족연구 수석연구고문은 50대 이상의 한인들은 다른 아시안들에 비해 “아시계와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하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강한 친 민주당 성향을 보이는데 이는 인종차별 문제와 이민 정책에 있어 민주당이 더 나은 정책을 펼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도계 또한 친 민주당 성향을 보이지만 한인들과는 결이 다르게 환경과 기후 문제, 총기 규제 문제 등에 진보적인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50대 이상의 아시안 유권자들은 85%가 이민자이며 86%가 “매우 높은” 투표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1%에 달하는 50세 이상 아시계 미국인 유권자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74%가 지역사회 단체에 관여하지 않거나, 접촉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지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이 41%로 가장 많았고 공화당이 33%로 뒤를 이었으며

무소속도 26%였다. 아시안 유권자들은 상당히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전 투표(46%)보다는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51%)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AARP의 AAPI 소수민족지도그룹 부문 대프니 퀸 부사장은 “아시계 미국인 50세 이상의 성인 투표율은 선거 시마다 다른 연령대를 계속 앞서고 있다”며 이들이 정치인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유권자층임을 강조했다.

한편, 50세 이상의 아시안 유권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72%가 실직 및 취업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48%) 등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아시안들도 증오 범죄, 괴롭힘, 차별(45%)을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이나 바이러스’란 언급이 아시안들에 대한 시선을 바꿨음을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editor@bostonkorea.com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 일반 치과
- 크라운
- 임플란트
- 잇몸 치료
- Invisalign
- Sleep Apnea

보험

- Delta Dental Premier
- Blue Cross Blue Shield
-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좋은 치과, 좋은 치아

공인 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 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융자 상담 및 재무제표 작성
- ▶ 급여(Payroll) 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 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성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B, Woburn, MA 01801



매스 19일 확진자 8백명 넘어 지속 증가세

보건부, 827 신규확진, 15명 사망
찰리 베이커 주지사, 충분히 준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수치가 점차 위험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매사추세츠 보건부는 19일 총 827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해 누적확진자는 14만 1천 4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도 15명 늘어 누적사망자는 9,532명으로 기록했다.

주 보건부는 19일 하루동안 17,654명이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체 2백 53만명 이상이 검사를 받았다. 한 사람이 복수로 받은 진단검사를 합해 실시된 총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 수는 총 5백 23만 건으로 집계됐다.

총 진단검사 실시당 7일 평균 양성 확진율은 1.2%로 올라갔다. 한때 매

사추세츠는 .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당 양성확진율은 2.9%를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4.5%에서 5% 사이를 넘나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처럼 진단검사 실시 인구당 양성확진율이 보다 정확한 확진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양성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3일 평균 병원 입원환자는 499명에서 494명으로 약간 감소했다. 가장 적었을 때 302명이었다. 다만 비상 상황으로 운영되는 병원은 한 곳도 없었다.

7일 평균 코로나바이러스 신규확진자 수는 19일 649명으로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치는 7월 5일 138명이었다.

하버드대학 TH공중보건원 감염병 역학연구소 소장 마크 립스치 교

수는 매사추세츠는 다른 주들에 비해 “확실이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신중한 경제 재개에 대한 접근과 공격적인 감염 경로 추적, 감염이 많은 지역에 대한 공격적인 진단 검사 실시로 감염 가능성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그는 “매사추세츠 주도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또다른 팬데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최근의 바이러스 증가세를 인정하면서도 매사추세츠 주는 이 같은 증가세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수도에서 채집한 바이러스도 확실히 증가세다. 매사추세츠 수자원 공사(MWRA)가 디어 아일랜드 하수도처리 시설에서 채집한 바이러스 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 여름 바이러스가 줄어들었으나 다시 증가세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



주정부는 19일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휴대폰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위험 경보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정부 고위험 지역 주민 셀폰에 경고 발송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주정부는 19일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휴대폰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 위험 경보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는 폭풍 등 재난이 닥쳤을 때 경고를 보내는 재난 경보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지휘실은 헬시, 에버렛, 로렌스, 린, 낸터킷, 뉴베드포드, 리버, 프레밍햄, 윈스롭, 우스터 등지의 주민들이 경보를 받았으며 인근 지역도 셀폰타워의 영향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경보 문자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경보문자는 오후 5시에서 10

시 사이에 발송이 됐으며 내용은 “MAGovt Alert.”이라는 제목과 더불어 거주하는 타운의 바이러스 위험이 높으니,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으라는 내용 등이다.

그러나 매사추세츠 주정부의 문자는 한국의 문자 알림처럼 어느 지역의 어느 건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동선이 어떤지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각심을 둘 수 있는 것지만 실제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 지사 에서 민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에게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수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력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Michelle Han **CPA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8일 경기 부양안에 대선 전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인 화요일 밤까지 타결되어야 한다고 협상 마감일을 제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 부양안 협상 마감일 화요일로

대선전 코로나바이러스 부양안 협상 타결 마감 제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8일 경기 부양안에 대선 전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인 화요일 밤까지 타결되어야 한다고 협상 마감일을 제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1.8조에서 2.2조 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두고 약 3개월 이상 큰 소득없이 협상을 벌여왔다. 펠로시 의장은 므누신 장관과의 협상에서 아직도 수많은 간극이 있다면서도 타결을 위한 시간은 정확하게 대선 2주전인 화요일까지 밖에 얼마 남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마감(deadline)이란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요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대선 전에는 부양안의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펠로시와 므누신 장관은 17일 75분간 통화했으며 19일 대화를 이어가기로 동의했

다.

트럼프 대통령과 약 1년간 한번도 대화를 하지 않은 낸시 펠로시 의장은 18일 조지 스타파노폴러스와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이 진실하지 않다고 하며,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그의 내각과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15일 낸시 펠로시 의장이 요구한 미 전략적 진단검사 계획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법안의 문구가 “반드시(shall)”가 “할 수 있다(may)”로 필수요구(requirement)가 권장(recommendations)으로, 계획(a plan)이 전략(a strategy)으로 모두 바뀌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법안 문구의 변경은 백악관에 너무 많은 유연성을 제공해서 부양안이 통과된 이후 얼마든지 실행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펠로시 의장은 “메이(may)라고 하면 대통령에게 많은 자금을 주게

된다. 이 자금으로 이런저런 일, 그랜트 등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shall)이라고 말하면 과학이 말하는 것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학교를 열 수 있고 사업체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안용어 외에도 펠로시 의장과 므누신 장관은 주와 지방정부 지원 자금, 차일드케어, 저소득층 세금 크레딧, 손배소면책조항 등에 대한 간극도 좁혀야 한다.

므누신 장관은 현재 중동을 방문 중이어서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을지도 분명치 않다.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공화당 상원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7일 다음 주 수요일 5천억달러 PPP, 실업추가급여 등이 담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맥코넬 대표는 합의가 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주택 광풍 지속 9월 판매 32% 폭증

▶▶1면에 이어서

의 모기지 이자율과 활황인 주식 시장이 각 개개인들의 자산을 늘려준 덕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매물은 많지 않아 주택 구매자들의 경쟁을 유발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독주택의 매물은 지난해 9월에 비해 29%나 줄었으며 현재의 주택구매 판세가 지속되는 경우, 약 6주 정도면 모든 매물이 팔리는 상황이 됐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주택시장에서는 경우 주택이 매물로 나와 6개월 정도면 팔리는 것이 보통이다.

콘도미니엄의 매물 공급은 단독주택에 비해 조금 나은 상태다. 특히, 콘도를 팔고 단독주택 구매를 원하는 소유주가 늘어난 관계로 매물은 27%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주택 시장의 활황은 콘도미니엄의 가격마저 끌어 올렸다. 그러나 일부 시장에서 콘도 가격은 하락세를 보여 겨울철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 전체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가을이 한창 깊어가는 보스톤이지만 아직 주택 시장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3월 이래 4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대부분의 실업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했으며 오히려 렌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고소득 프로페셔널의 경우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이처럼 고소득 재택근로자의 경우 아이들의 온라인 수업과 일을 병행하는 관계로 더 넓은 집의 필요성이 커졌으며 교외로의 이사 계획을 앞당겨 실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다. 이 같은 수요의 증가는 주택시장을 계속 달아오르게 만드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특별한 상황인 관계로 과연 이 같은 주택 구매 광풍이 얼마나 지속될지 부동산 전문가들도 예측 불가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hsb@bostonkorea.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요가송의5분요가



YOGA SONG HAYEON

매트도 필요없는 아침 스트레칭 10분

“오늘 아침에 기지개 펴 보셨나요?
혹시 안했다면, 지금이라도 손 깎지 끼고 하늘 위로 팔 길게 쭉쭉 뻗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얼마전 개인수업을 하고 끝날무렵 회원님께 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가 시작 전에는 하루종일 기지개를 펴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기지개를 펴려고 손을 올리는 것조차 힘들고 아파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다고요.
이렇듯 우리 몸은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굳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짜며 할 수 있는 짧고 굵은 기상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더도말고 딱 10분만 시간내셔서 기쁘고 상쾌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트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어서하는 동작들로만 이루어졌으니 어디서든 부담없이 따라하시면 되구요. 제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Wake-up Stretch/상쾌한 아침을 여는 스트레칭편을 찾아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자세를 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HAYEON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요가&필라테스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배울 동작은 스탠딩 사이드밴드입니다.
STEP 1 : 일어난 자리에서 팔을 하늘위로 뻗어 기지개 펴듯 옆면을 늘려줍니다.
STEP 2 : 오른 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끌어당겨주세요.

POINT! : 이때 왼발은 바닥으로 지긋이 눌러 주시구요
STEP 3 : 들이쉬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오고 두차례 정도 반복 후, 다른 방향으로도 스트레칭 해줍니다.



두번째는 트위스트 스쿼트 자세입니다.
STEP 1 : 마치 와이드스쿼트를 하듯 두다리를 벌려 무릎을 접습니다.
STEP 2 : 사진처럼 오른 어깨를 앞으로 보내

고 몸통을 회전해주세요.
POINT! : 손으로 허벅지안을 지긋이 눌러 안 벅지도 시원하게 열어주시구요!
STEP 3 : 호흡과 함께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며 좌우로 몸통을 비틀어주세요.



세번째는 런지 자세입니다
STEP 1 : 두다리를 앞뒤로 벌려 앞 무릎을 먼저 90도 정도 접어줍니다.
STEP 2 : 먼저 뒤의 다리는 펴 허벅지 앞부분의 자극을 느껴주세요.
POINT! : 양손으로 앞의 다리의 허벅지를 지긋이 눌러주세요(영상 참조)
STEP 3 : 천천히 두다리를 핀 후, 양손을 하늘 위로 올려 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앞무릎을 구부린 후, 팔꿈치를 접어 가슴을 들어올립니다.
STEP 4 : 앞무릎을 접었다 펴주기를 반복하며 가슴과 뒷다리의 허벅지 뒷쪽을 열어주세요. 5번정도 반복후 다리 바꿔 진행해주세요.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Wake-up Stretch영상을 참고해 따라해보시고 궁금한 점은 영상 밑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해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직접 운동을 하러 가기 힘들거나 요가 수업을 들을 수 없으신 분들 중, 온라인 1:1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요가원 이메일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로 직접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번주부터는 좀더 부지런하게 아침 기상 스트레칭으로 하루 시작하시며 좀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응원합니다. 나마스떼!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ful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beToYogasong>

Janice & Lisa

지식과 경험,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와 드립니다

제니스 리
978.806.6023
JLee@OwnNewEngland.com

리사 리
857.294.9760
LLee@OwnNewEngland.com

주택 / 건물 / 투자, 원하시는 매물 확실히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Janice & Lisa Team

COMPASS



Our mission is to help everyone
find their place in the world.



Why Compass 왜 컴파스인가?

- 부동산 서비스와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 기업
부동산(property) + 기술(technology) = 컴파스 (Compass)
- 부동산 구매자와 에이전트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매물 검색과 개인화된 매물추천,
부동산 거래 관련 상호 커뮤니케이션 등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통합 부동산 플랫폼 제공
-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5000억원 투자한 회사
- 저스틴 월슨 비전펀드 선임 투자전문가 “컴파스는 주택 구매자와 중개업자를
연결해주는 차별화된 기술 플랫폼을 갖추고 있어 이 분야에서 입지가 탄탄한 기업”
- 2019년 판매량 기준 보스턴 및 케임브리지 1위 (Source: MLS)
- 750+ Agents in Greater Boston
- Operates in 20 U.S. markets including New York, Philadelphia, Boston,
LA, Chicago, Washington D.C., Dallas, etc.

Agent Introduction 에이전트 소개

안녕하세요, 제이슨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미국 최고의 부동산 회사인 컴파스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토탈 서비스를 가지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 (dedication), 믿음 (Trust), 결단력 (Determination) 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ompass 와 함께 차원이 다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 드림



Jason Jeon 제이슨 전
Realtor®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Compass Services

Compass Concierge 컴파스 컨시어지

컴파스 컨시어지는 셀러에게 무이자로 주택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페인트, 바닥, 스테이징 등
집 리모델링에 관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최대한 올려 더 빠르고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Compass Coming Soon 컴파스커밍순

compass.com 에 부동산을 시장에 출시 될 예정임을
사전에 광고하여, 사이트를 검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ompass Bridge Loan Services 컴파스 브릿지론

컴파스 브릿지론은 최대 6개월의 브릿지대출의 대출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브릿지 대출 기관인 Freedom Mortgage, Better.com 의
경쟁력있는 이자율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매사추세츠 1백만명 넘는 유권자 투표 마쳐

10월 20일까지 1백만 1천725표 접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11월 3일 대선을 2주여 앞두고 매사추세츠 주내 1백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조기투표와 우편투표를 통한 사전투표에 참여해, 관계자들은 기록적인 투표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매사추세츠 주무부에 따르면 10월 20일 오후까지 총 1백만 1천725 사전투표 용지가 접수됐다. 지난 17일 토요일부터 조기투표가 시작됐

으며 우편투표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매사추세츠 전체 유권자 4백66만명 중의 42%에 달하는 총 1백6만명의 매사추세츠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신청했다. 지난 예비선거에서는 80만명이 우편투표에 참여했었다.

이 같은 사전투표 열풍으로 유권자 5명 중 1명은 투표를 마친 상태이며 2016년 대선 당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3,378,801명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윌리엄 갤빈 주무부 장관은 지난 9월 주 예비선거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기록적인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매사추세츠의 확장된 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투표하거나 조기투표 그리고 투표 당일 투표 중 하나를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지난 2016년에는 1백만명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조기 투표에 참여했었다.

윌리엄 갤빈 장관 자신은 11월 3일 투표 당일 직접 참가해 투표할 계획이라며 약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까이가 투표 당일에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조기투표는 특히 주 외곽지역에서 급증하고 있다. 케이프 코드는 전체 유권자의 44%인 1,940명이 투표를 마쳤으며 렉싱턴은 전체 유권자의 43%인 9,693명, 콩코드의 경우 42%인 5,903명이 각각 투표를 마쳤다.

보스톤도 현재까지 4만9천명이 투표를 마쳤지만 이는 12% 정도에 불과한 수치다. 우스터의 경우 유권자의 20%인 21,000명이 투표를 끝냈다.



보스톤 공립학교 22일부터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증가가 원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 공립학교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증가로 인해 22일부터 모든 수업을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한다고 밝혀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스톤글로브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보스톤시의 코로나바이러스 양성확진율은 10월 17일 5.7%로 상승했으며 2주전 4.1%, 1주전 4.4% 등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보스톤 시와 교사 노조는 4%의 코로나 감염율에 학교의 대면수업 중단기로 했지만 결핍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면수업을 실시해 왔었다.

결핍 학생들 즉 영어가 서투르거나, 장애가 심한 학생들, 홈리스 학생들, 보호대상 학생들은 대면수업을 진행했고 나머지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

해왔다.

보스톤 공립학교는 지난 9월 21일 학기를 시작한 이래 두차례나 단계적인 대면 수업 재개를 연기해 왔다. 10월 15일에는 프리킨더와 킨더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보스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양성확진율이 2주 연속 5% 이하인 경우에는 결핍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 대면수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2주 연속 4% 이하인 경우 일반 단계적으로 대면수업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마티 월시 시장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수치와 공중보건 자료가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만 대면수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감염 수치가 더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 자가진단 코로나 테스트 키트 판매 합니다. 개당 \$50”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코로나발 여행 급감에...미 4대 항공사, 3분기 12조원대 손실

아메리칸항공 24억달러, 사우스웨스트항공 12억달러 순손실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여행 수요가 급감하면서 미국 항공사들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 있다.

아메리칸항공은 22일(현지시간) 3분기 24억달러(약 2조7천억원)의 순손실을 내 전년 동기 4억2천500만달러 순이익에서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주당 순손실은 5.54달러로 시장 전망치(-5.86달러)보다는 약간 적었다.

매출은 31억7천만달러(약 3조6천억원)로 작년 3분기 119억달러에서 73% 급감했다.

아메리칸항공의 3분기 실적은 이달 들어 직원 1만9천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작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회사를 비롯한 미국 항공사들은 코로나19 탓에 여름 성수기를 망친 데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끊기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사우스웨스트항공도 이날 3분기 순손실이 12억달러(약 1조4천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도 17억9천만달러(약 2조)로 지난해 3분기 56억달러에서 68% 급감했다.

앞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유나이

티드항공은 18억달러(약 2조원), 델타항공은 54억달러(약 6조1천억원)의 순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여기에 아메리칸항공과 사우스웨스트항공을 더하면 미 4대 항공사의 3분기 합산 순손실은 108억달러(약 12조3천억원)에 이른다.

미국 항공업계는 올해 상반기 연방정부로부터 250억달러의 지원을 받았으나, 같은 금액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 호소하고 있다.

워싱턴 정가는 항공사 추가 지원 방안을 포함한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를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미 신규 실업수당 79만건... 코로나 본격화 이후 최저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실직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본격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 노동부는 22일(현지시간) 지난주(10월 11일~17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8만7천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주 84만2천건(종전 발표 89만8천건에서 하향 조정)에서 5만5천건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지난 3월 둘째 주 28만2천건 이후 최저치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7만건을 크게 밑돈 결과이기도 하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837만건으로 102만건 급감했다.

이날 발표는미 고용시장의 점진적 회복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이 많지만,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전보다 여전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인 데다 통계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N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가 각 주에서 최대 26주 지급하는 정규 실업수당을 모두 소진한 실업자가 많아진 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연방정부가 추가로 13

주 동안 지급하는 '팬데믹 긴급 실업수당'(PEUC) 청구 건수는 지난 9월 27일~10월 3일 기준 51만건 급증한 330만건으로 집계됐다.

또 기존 실업수당 청구 자격이 없는 독립 계약자나 깃 근로자(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팬데믹 실업보조'(PUA) 신규 청구 역시 전주보다 34만5천건 증가했다고 미 노동부는 밝혔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미 경제전문가인 캐시 보스탄칙은 뉴욕타임스(NYT)에 "청구 건수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고, 실업자를 위한 재정 지원의 부족이 소비자 태도와 소비 지출을 압박할 것"이라며 "지원금에 의존하는 가계들에 매우 고통스러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폭증 사태는 3월 셋째 주(330만건)부터 본격 시작됐다.

같은 달 넷째 주에 687만건까지 치솟은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20주 연속 10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인 충격을 미치기 전인 지난 3월 초까지만 해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21만~22만건 수준이었다.

firstcircle@yna.co.kr

신신마트 당일배송

신신 가을 이벤트

오후기 설렁탕 혹은 사골곰탕

1 FREE \$150.00 or more
2 FREE \$250.00
3 FREE \$350.00 or more

배달 서비스

EXPRESS DELIVERY

각종 고기와 반찬, 쌀, 라면, 야채, 과자 뿐만 아니라 신선한 생선회(Mr. Sushi) 등을 1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안전하게 당일 배송해 드립니다.

\$100불 이상 / 배송비 10불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은 Free Delivery 해드립니다.

가격과 품질에 정직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신신 스페셜

얼큰한 해물 짬뽕국물 (\$7.99)

순두부 (\$7.99)

육개장 (\$9.99)

싱싱한 홈메이드 신신만두 (\$25.00)
(고기만두, 김치만두)

ALL 유기농 늘푸른 농장

한국포도 \$19.99/pack, \$36.00/box

메주콩, 검정콩 \$29.99/5LB

배즙, 포도즙, 대추즙 \$29.99/25packs

마른대추 \$29.99/1bag

고춧가루 \$69.99/3.8LB

신신마트) 978.686.0813 (매장)

781.308.2073 (줄리 안), 781.308.2072 (다니엘 안)

케이타링 문의

한식, 일식, 중식 케이타링 (보스톤 4성급 호텔에 납품하는 허가된 등록업체입니다)

문의 781.308.2073 (줄리 안)



바이든, '보수대법원' 손질 시사... "당선시 법원개혁위원회 구성"

법원개혁 첫 구체안급 "180일內 권고안 제출"...상원 법사위, 배럿 인준 통과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연방대법원 시스템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자의 가세로 연방대법원 보수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 상원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배럿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바이든 후보는 CBS 시사프로그램 '60분'에 출연, 당선될 경우 현재 9명인 연방대법관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질문을 "당선된다면 내가 할 일은 학자, 헌법학자, 민주당원, 공화당원,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등으로 구성된 초당파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나는 그들에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법원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권고안을 180일

안에 제시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CBS가 25일 본방송에 앞서 이날 일부 공개한 것으로, 바이든 후보가 연방대법원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그것은 대법원 재구성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헌법학자들이 토론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위원회가 내용을 권고안을 보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배럿 후보자가 상원에서 인준될 경우 연방대법원 재구성을 시도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트럼프 진영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그러다가 이달 초 한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법원 재구성 신봉자는 아니지만, 그 전체 이슈에 대한 얘기를 그만하길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해 연방대법원 개혁 논의의 여지를 남

겨웠다.

지난주 ABC뉴스 타운홀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고 "공화당이 얼마나 서두르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별세한 루스 베이더킨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내세운 배럿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차기 대선 승자가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honeybee@yna.co.kr

FDA, 코로나 치료제로 렘데시비어 정식사용 승인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2일(현지시간) 길리어드사이언스에서 개발한 렘데시비어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승인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미국에서 정식으로 승인된 코로나19 치료제는 렘데시비어

가 처음이다.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어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DA는 지난 5월 렘데시비어의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firstcircle@yna.co.kr



MASS-Drain

DRAIN & PLUMBING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보스톤코리아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시고.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V 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윤석열 "총장, 장관 부하 아니다...지휘권 박탈 비상식적"

'라임 사건'서 야권 부실수사·가족 비위 의혹 등 부인, "대통령이 총선 후 '임기 지켜라' 전해...총장 소임 다할 것"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주미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겨냥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라임 로비 부실 수사, 가족·측근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며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법무부의 감찰 결과에 '중상모략'이라고 반응한 데 대해서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며 전날 추 장관의 '성찰과 사과' 요구도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근거가 된 라임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 의혹과 총장 가족·측근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라임 사건과 관련해 "여당과 야당 의원 관련 비위는 각각 지난 5월 7일과 21일 직접 보고를 받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수사 지시에 여야 간 온도차가 있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야당 의원의 비위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대검 참모를 '패싱'하고 직접 총장에게 보고했다는 의혹도 "초기 단계 첩보는 직접 보고가 이뤄지고 수사 재가가 이뤄지면 참모를 통해 보고가 이뤄진다"며 부인했다.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협찬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 가족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응수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박탈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며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질타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또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적절한 메시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국감 시작과 동시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퇴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윤석열 "퇴임 후 국민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할 것"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권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된다고 하자 "지금은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며 답했다.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

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솔직히 검찰조직의 장으로 오히려 불리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만약 검찰개혁 저지 등 어떤 나쁜 목적이 있었다면 수사는 안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맞다"라며 당시 수사는 검찰개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서는 "고발이 대부분 언론 기사를 토대로 한 것인 만큼 공개정보만으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압수해놓자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려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 자료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상당 부분은 기각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영장이 대부분 발부가 됐다"고 덧붙였다.

대검 국정감사는 23일 새벽 1시가 넘어서 종료됐다.

rock@yna.co.kr



SMART
DENTAL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 WEEKLY SALE OCT. 23rd - OCT. 29th, 2020

H 마트와 함께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몸의 거리는 넓히고, 마음의 거리는 좁혀야 할 시간. H 마트 고객분들과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 6피트 안전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hmart_ma

Join the H Mart Social Distancing Campaign, to help slow down the spread of COVID-19 for you and our H Mart family. Keeping 6 feet apart will bring us together again.

	VEGE-QUEEN Dried Persimmon 로얄 1 LB/PKG. \$6.99		King Oyster Mushroom 한국산 새송이 버섯 PRODUCT OF KOREA 2 \$5.10.58 OZ. / PKG. \$2.59		Hass Avocado 헤스 아보카도 EA. \$0.99		Fuji Apple 후지 사과 PREMIUM QUALITY/LB \$1.49		Kabocha 단호박 LB \$0.79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LB \$1.49		Oriental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99		SOONYEONWON Tofu 수녀원 두부 3종 SOFTENED/FIRM/HAKEZ PKG. \$1.29		White Cabbage 화이트 양배추 LB \$0.79		ZESPRI SunGold Kiwi 제스프리 골드 키위 2LB PKG. \$6.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8.99		Fresh Sliced Pork CT Butt Steak 생 목살 소금구이 LB \$6.99
	Fresh Chicken Drumstick 생 치킨 드럼스틱 LB \$1.49		Frozen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 양지 슬라이스 LB \$8.99
	Boneless Smoked Duck 훈제오리 (반마리) HALF/LB \$14.99		Marinated Sliced Pork Single Belly 양념 삼겹살 LB \$6.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TONGTONGBAY Frozen Pollack Fillet 냉동 통통배 냉동 동태전감 LB \$1.99		Frozen Head-on Shrimp 냉동 머리새우 30-40'S/LB \$5.99
	TONGTONGBAY Frozen Herring Fish 냉동 통통배 디포리 10.55 OZ. / PKG. \$7.99		Frozen Pollack 냉동 통태 LB \$1.99
	TONGTONGBAY Frozen Cooked Shrimp 냉동 통통배 껍새우 41-50'S/1 LB - PKG. \$8.99		Fresh Salmon Steak 생 연어 스테이크 LB \$6.99

SMART CARD MEMBER ONLY

	HARU HARU Medium Grain Rice 하루하루 마이 햅쌀 NEW CROP 15 LB \$13.99		DONGWON Shrimp Cutlet 동원 통살새우가스 16.9 OZ. \$6.99
	KWANGCHUN NONGHYUP Premium Green Tea Seaweed 광천 농협 녹차 도시락김 선물세트 0.7 OZ. X 10 EA./BOX \$9.99		HAIORUM Dumplings 해오름 손만두 3종 VEGETABLE/KIMCHI/FRIED - 2.65 LB \$4.99

	KADOYA Pure Sesame Oil 가도야 참기름 56 FL.OZ. \$14.99		THREE CRAB BRAND Fish Sauce (Viet Huong) 삼계 순명치 액젓 24 FL.OZ. \$3.99		GOMPYO Wheat Flour 곰표 밀가루 5.5 LB \$3.99		CJ Dasida Soup Stock CJ 최고기 다시다 BEEF/ 2.7 LB \$10.99		HAIORUM Somen 해오름 막국수 KOREAN STYLE NOODLES/ 3LB \$2.99
	S&B Golden Curry S&B 골든커리 MILD/MED. HOT/EXTRA HOT - 7.8 OZ. \$2.99		HAIORUM Bai Top Shell 해오름 굴껍지 14.1 OZ. \$5.99		JINGA Beef Bone Flavored Soup 진가 사골곰탕 16.9 FL.OZ. X 6 EA. / BOX \$9.99		HAIORUM U-Dong 해오름 우동 JAPANESE STYLE NOODLES/ 2.75 LB(8.81 OZ. X 5 PCS/PKG.) \$2.99		NIPPONHAM Karaage Chicken 니폰햄 카라이게 치킨 12 OZ. \$5.99
	ORION Cosomi 오리온 고소미 SWEET & SALTY CRACKER - 7.62 OZ.(21.64 PKG.) \$2.99		MAEL Biofeel Yogurt 매일 요구르트 PLAIN/ 63 mL X 25 EA./PKG. \$3.99		HELLO! Electric Multi Kettle 헬로! 멀티 전기주전자 1.5 L(GRAY)/EA. - \$27.99 \$19.99		HELLO! Coffee Tumbler Mug 헬로! 커피 텀블러 BLACK/WHITE 500 mL/EA. \$10.99		HELLO! Spray Mop with 2 Mopping Pads 헬로! 스프레이 물걸레 청소기 +패드 2장 BLUE/SET \$11.99

오늘 만든 생 떡국떡

FRESH SLICED RICE CAKES

Made Today. Gone Tomorrow.

10 times chewier,
100% natural ingredients,
produced daily

10배 이상 쫄깃한 떡김,
100% 천연재료,
매일 생산

CUSTOMER SERVICE
T. 877.427.7336 Customer.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000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CONTACT: me@hmart.com



사장 나 원 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부사장 수잔 안
339.224.1512
susan@bostonpremierrealty.com

OUR AGENTS



이 제 봉

781.654.5281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애나 정

617.780.1675

anna@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신 보 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 성 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 현 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 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 준 군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 민 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최 은 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이 영 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김 원 태

617.620.8242

otk212@gmail.com



재키 형

617.795.6171

jacki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Eunsuk Song

413.313.4165

kathysong2019@gmail.com



Micki Choi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주 승 원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최 승 진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렌트전문
팀장**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WWW.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FEATURED LISTINGS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5 Units 리테일 스토어
식당, 세탁소, 이발소 테넌트

Asking \$825,000

LISTINGS



● 세탁소 건물 + 비즈니스

현재 성업중인 Full Plant 세탁소 건물, Watertown
재개발 상권(호텔, 콘도, 쇼핑몰, 콘도, 연구실...)과
레지덴셜이 맞물린 위치, 파킹 5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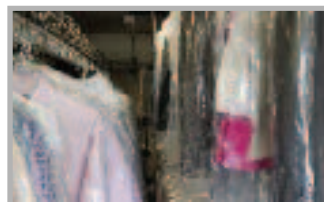
Asking \$999,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에 위치(Norwell)
성업중인 Drycleaner 드롭 오프 & 얼트레이션
오랜기간 운영으로 꾸준한 단골이 많음

Asking \$53,000



● 세탁소 매매

안정적인 매상, 두터운 고객층.
보스톤 북부에 위치한 Full Plant
년매상 \$250,000

Asking \$189,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에 위치, 1층 식당, Property 텍스 저렴
2&3층 Residential 아파트, 월 렌트 인컴 \$5,500

Asking \$599,500 Price Reduced



● 네일샵 매매

T 스테이션에 가까운 위치, 연매상 80만불이상
철저한 고객관리로 안정된 인컴, 전용주차장

Asking \$380,000



● 세탁소 매매

Full Plant, 보스톤 북동쪽 타운
확보된 단골고객들
리뷰&매상 좋은 세탁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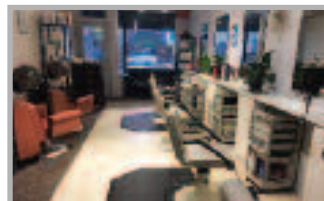
Asking \$200,000



● 세탁소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Full Plant
확보된 안정된 고객층

Asking \$120,000



● Lexington Hair Salon

Lexington 사업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헤어사롱.
26년 주인이 직접 운영해서 단골 손님 많음.

Asking \$40,000 Price Reduced



● Westford Nail salon

단골 손님이 많고 매상이 계속오르는 네일사롱
Manicure 6, Pedicure 6

Asking \$170,000



● 세탁소 매매

교통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30분 거리
Full Plant + 새 프레스 기계
급매 원함

Asking 문의 바람



● 네일샵 매매

높은 매상과 안정된 고객층
고급스런 인테리어
최상의 비즈니스 투자

Asking \$320,000



● 커피샵 매매

보스톤 북쪽 타운, 연매상 20만불 이상
확보된 단골 고객, 부담없는 렌트비
1200 sq.ft.

Asking only \$90,000 Price Reduced



● Waltham Flower shop

오래가 20년을 운영. Main St 에 위치.
꾸준하게 잘 되는 비즈니스,
단골 손님을 많이 확보

Asking \$100,000



● 드랍오프 세탁소

30년간 성업중인 드랍 오프 세탁소 매매,
안정된 고객과 수익, 주인 은퇴, 좋은 위치,
Marblehead, MA 1700 SF.

Asking \$50,000



● 미용실(hair Salon)

잘 꾸며진 성업중인 미용실 매매, 1200 SF.
안정된 고객과 수익, Lexington
Lots of parking

Asking \$80,000 Price Reduced

CJ대한통운 "분류지원 4천명 투입해 택배기사 근무 단축"

잇단 사망 사고 · 과로사 대책 발표...전원 산재보험 · 매년 건강검진, 분류 자동화 확대...상생협력기금 100억원 조성해 긴급생계지원

CJ대한통운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택배기사 사망과 관련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22일 서울 태평로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이은 택배기사 사망에 대해 사과한다"면서 "CJ대한통운 경영진 모두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 대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우선 택배 현장에 별도의 분류지원인력 4천명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해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CJ대한통운에서 일하고 있는 분류 인력은 1천명으로, 이를 총 4천명 규모로 확대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기사 4천명은 업무 시간의 절반을 분류 작업에 쓰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며 작업을 거부했다 철회한 바 있다.

정대영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은 "현재 택배 현장에는 자동분류 설비인 휠소터가 구축돼 있어 분류

지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 택배기사들의 작업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문장은 "분류 업무를 하지 않게 된 택배기사들은 오전 업무개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 선택 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전체 근무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기사 업무에 포함돼 있던 분류 작업을 분리하면 택배기사들이 받는 수수료가 줄어들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당 수수료에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전문기관을 통해 성인이 하루에 배송할 수 있는 적정 물량을 산출해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택배기사 3~4명으로 이뤄진 팀이 업무를 분담하는 '초과물량 공유제'를 도입해 특정 기사에게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휠소터의 오분류 문제는 기술 개발을 통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최근 논란이 된 산업재해보험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놔다.

정 부문장은 "올해 말까지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산재보험 적용 예외신청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신규 집배점은 계약 시, 기존 집배점은 재계약 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현행 격년제인 택배기사 건강검진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해 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지원 항목에 뇌심혈관계 검사를 추가한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택배기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근로자 건강관리센터와 협력해 연 3회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건강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회복될 때까지 집배송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물량 축소를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물량의 90%에 달하

는 소형 택배 화물을 자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전용 분류 장비를 추가 마련하는 등 현장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내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조성해 택배기사 긴급생계지원 등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 부문장은 "사망한 기사들의 유가족과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로금 관련 이야기를 나누

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날 새벽 경기도 곤지암센터에서 일하던 운송노동자 A(39)씨가 간이휴게실에서 사망한 데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는 총 13명으로, 이들 중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는 6명이다.



택배기사 사망 관련 사과문 발표장에 참석한 CJ대한통운 관계자들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전상품 1년 약정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60

KBS MBC SBS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23년 BMW와 함께 해온 전문가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브라이언 조
Brian Cho
Executive Client Advisor



BMW OF NORWOOD
M CERTIFIED CENTER

2021년 신차 구매 및 리스
퍼포먼스 차량 전문 M-Certified 딜러
저렴한 럭셔리 중고차 브랜드 취급

Phone : **617.970.1073**
Email : **bcho@driveprime.com**

918-920 Providence Highway Route 1 <The Automile>, Norwood, MA 02062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민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십시오.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코리아**

후원금 기부자 (6월19일 현재)

김성혁 (한미정치력신장연대)
무명 기부자 2명
김병국 (한미예술협회)
한미예술협회
손광희
최홍균
황성미
모니카 리(이재영)
연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 동창회
윤희경(보스톤봉사회)
필라모니아 보스톤
보스톤 뉴헤미야 인스티튜트
김희선
김한나 변호사
이길진
727 정전기념사업회(강경신, 김성혁)
김은한
권복태
사라 제럴드



성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성 양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은
새 임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11월 중순부터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본당 유튜브 채널주소
<https://bit.ly/2JJ6ZdT>

평일 미사
월요일: 아침 6시
화-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1시

Contact:
stadparish@gmail.com
617-558-2711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급매 커머셜 건물

1층 식당 2-3층 아파트
최적의 은퇴투자
보스톤 북쪽 도시에 위치

연락처 : 978.494.2043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종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중 대한예수교장로회 피루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원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공요기도회: 오후 8시
주일학교: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골프 레슨



Master Golf Professional

최성조 프로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감추어도 느껴지는 대한민국 미소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는 대한민국 미소의 힘은
항상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른 소통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위해
따뜻한 미소를 지닌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 예방하기!!

- ① 함께있는 자리에 마스크 꼭!꼭! 해요.
- ② 손은 30초 이상, 자주 씻어주세요.
- ③ 기침이 나오면 옷소매로 가려야 해요.



국제선 평화마을 여행기

일곱 오리 가족의 12 일간 RV 여행기

코로나로 세상이 쫘쫘 얼어붙고 자유롭지 못한 이 때에 사비나눔과(오리엄마 조진희) 부군님(오리아빠)의 특별 배려로 7명의 오리 가족이 탄생돼, 장장 12일 간의 여행이 시작 되었다

말만 듣고 상상만 하였던 국제선 여성 선교회가 설립한 “평화마을”을 목표로 하루 8시간씩 달려 2박 3일 후 목적지인 평화마을에 도착했다. 오리아빠가 오리엄마와 막내딸(김인숙)에게 번갈아 운전 가르치시며 말이다.

난생 처음 집구조로 된 캠핑카를 타고 가는 여행이었다. 딸들이 다섯이 되다 보니 아룡이 다룡이라고 오리 가정 분위기 메이커는 셋째딸(이영수), 넷째 딸(유장심), 듣는 청중과 장단을 맞추는 첫째딸(이숙), 둘째 딸(김아그네스)이었다.

오리엄마가 음식 베테랑이라 여행하면서도, 옛날 왕이 어찌 여행 중에 이런 진수성찬을 먹어 보았을까. 집에서 보다 더 잘먹고, 없는것 없이 다 갖춰진 호화집이어서 비행기타고 호텔에 자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나날이었다.

즐거운 3일여행 끝에 도착해서 “평화마을” 한글로 된 간판을 보니 몽클하면서 모두들 “와! “약속이나 한듯이 합성이 터졌다.

30여년이 넘고, 40여년 가까이 만들어 온 미조리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평화마을” 어떻게 국제 선교회 여자들의 힘으로 그 긴 세월을 이끌어 왔으며 이렇게 훌륭한 건물도 세울 수가 있는지.

단지 느낌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믿음과 하나님의 지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터전 마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곳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1년이면 충분하겠지요. 연약한 여자들의 힘으로 푼돈 모아 돈이 있는 만큼 만들며 이루어 오니 30년 넘게 걸려 아직도 미완성의 자리에 서있는 것이겠지요.

처음부터 세상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 쫓아 헌신해 오신 김민지 목사님, 그리고 뒤에서 말없이 수고하신 국제선교회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대단합니다!” 벌어진 입 다물지 못하고 “멍 때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화마을에서 선구자들이 노력과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포근하고 편안한 곳에서의 5박 6일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는 차분히 구경할 것 구경하며 4박 5일로 무사하고 무탈하고 건강하게 오리가족의 12일간의 캠핑카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리가족 좋은 추억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주신 오리엄마, 아빠께 감사드립니다.

북부보스턴 교회 이숙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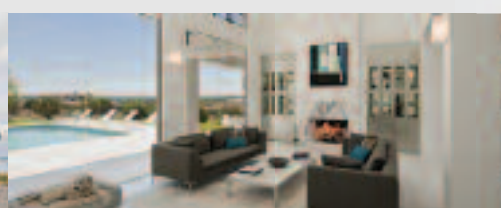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Premier Realty Group과 함께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비전과 열정있는 에이전트를 모집합니다"



보스턴 최고 한인 부동산 회사 Premier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bostonpremierrealty.com

**275 Grove St. Suite 2-400
Newton, MA 02466**

국제선 평화마을 여행기

코로나바이러스 여행기

걸리면 걸릴리라.

코로나바이러스를 뚫고 캠핑카로 지인의 천사같은 남편과 부인 사비나 씨 김인숙권사님의 안전운행으로 장장 12일에 걸쳐 중부대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간다간다 하던 국제선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화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그 노래가 떠오르며 아침에 눈을 뜨니 물안개 낀 호수, 맑은 공기, 주위에 풍광이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그곳에서 수고 하시는 김민지목사님, 이연희 권사님, 최희선선교사님, 추정숙권사

님, 최현숙집사님, 나성애집사님, 황진희집사님 외에 있는동안 풍성한 음식과 사랑으로 대해주셔서 힐링하고 왔습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시간 되시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여성분들, 한마디로 "대단하십니다"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여행, 차에서 7명이 먹고, 자고, 웃고 떠들며 같이 동행 해주신 모든 분께도 행복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9월26일 2020년

보스톤 유정심 권사



평생 잊지 못할 추억 여행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로 인하여 방콕하던 중 지인 덕분에 중부대륙의 반을 횡단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 어떤 고급 호텔보다 더 좋았던 RV를 타고 다녀온 12일간의 여행은 코로나로 지친 일상의 삶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었습니다.

서로서로 챙겨주고 배려해주며 도시들 곳곳을 지나 세인트루이스(St. Louis)로 향해 달려간 시간들은 항상 웃음꽃으로 가득 찼고, 눈 깜박할 사이에 시간은 흘러 어느덧 "평화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그 순간의 감동을 아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평화의 마을"을 직접 보고 느낀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할렐루야!"였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걷던 저녁 산책, 엄마의 품처럼 포근하게 감싸주던 물안개 그윽했던 호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느님과, 믿음과 노력으로 일구어내신

국제선교회분들 그 안에 잠깐이나마 함께 할 수 있었던 자체만으로도 제게는 큰 축복과 힐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한번 다녀 오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저희를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평화의 마을" 김민지 목사님을 비롯하여 봉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존경스러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고자 하는 일이 실타래 풀리듯 잘 풀려서 대업을 이루시길 두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젊었을 때도 하지 못한 대륙 횡단을 이번 기회에 하며 너무나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꿈꿨던 12일의 중부여행 앞으로 평생 간직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같이 동행해주신 모든분들과 이 여행을 가능케 해주신 주님과 사비나씨 부부, 인숙씨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김아네스



블랙핑크, 美유명 토크쇼 잇따라 출연..."가장 인기있는 걸그룹"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최근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2위에 오른 걸그룹 블랙핑크가 현지 유명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며 글로벌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블랙핑크는 20일(현지시간) 미국 ABC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 K팝 걸그룹 최초로 출연했다.

'지미 키멜 라이브'는 코미디언 지미 키멜이 2003년부터 진행하는 토크쇼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정치인과 팝스타 등이 출연한 프로그램이다.

키멜은 "K팝이라는 어마어마한 왕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이라고 블랙핑크를 소개하며 화상 인터뷰를 시작했다.

제니는 지난해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으로는 처음 출연한 미국 음악 축제 '코첼라 페스티벌'에 관한 질문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고 싶은 꿈의 무대일 것"이라며 "연습생 시절 코첼라 무대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즐거웠다"고 답했다.

로제는 지난 2일 발매한 정규 1집 이름인 '디 앨범'(THE ALBUM)을 두고 "아이디어가 많이 있었지만, 팬들이 우리 앨범을 매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블랙핑크를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는 이름을 짓기



로 마지막 날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블랙핑크 멤버 모두가 미국 래퍼 카디비(B)의 엄청난 팬이라 밝힌 제니는 "카디 비가 수록곡 '벳 유 워너'(Bet You Wanna)를 피쳐링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폴짝폴짝 뛰고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블랙핑크는 팬덤 명인 블링크

가 가진 의미, 다른 아티스트와의 만남 등을 놓고 키멜과 대화를 주고받았다.

블랙핑크는 이날 '디 앨범' 타이틀곡인 '러브식 걸즈'(Lovesick Girls) 무대도 선사했다.

이들은 컨트리풍의 기타 선율과 레트로한 댄스 사운드에 맞춰 힘차면서도 유연한

군무를 선보였다. 세트는 한밤 도심 속 거리로 꾸며졌고, 형형색색의 네온사인과 조명이 퍼포먼스를 하는 네 멤버를 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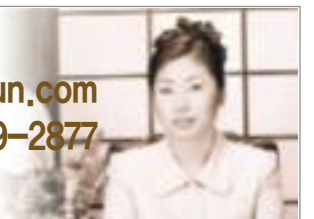
블랙핑크는 오는 21일 미국 ABC 인기 토크쇼인 '굿모닝 아메리카'에도 출연해 글로벌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rambo@yna.co.kr

10월 25일 - 10월 31일

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천군마마를 얻은 것 같이

●운수: 주위의 도움이 따를 것입니다. 천군마마를 얻은 것 같이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샘솟게 됩니다. ●금전: 일처리가 순조롭게 척척 잘 진행될 것입니다. 자금회전도 잘 되어갑니다. ●애정: 멀어졌던 사이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회복의 시기가 왔습니다. 주위와 함께 나눌만한 기쁜 소식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5, 28일 길일. 27, 30일 주의.

소띠 | 충분히 누리도록

●운수: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을 때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누리도록 하세요. ●금전: 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가는 것은 많지만 현상유지는 됩니다. ●애정: 뻥하고 흔한 말은 그리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말 한 마디가 더 와 닿게 해줄 것입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5, 29일 길일. 28, 31일 주의.

범띠 | 백문이 불여일견

●운수: 타인의 실수를 관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훗날에 도움이 되는 인심을 얻게 됩니다. ●금전: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애정: 밖에 일만 신경 쓰지 말고 집안 단속부터 잘해야 합니다. 집안문제가 밖으로 불거져 나와 체면이 손상되거나 구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27, 30일 길일. 26, 29일 주의.

토끼띠 | 한 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운수: 한 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올 상황을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금전: 급한 마음을 버리고 때를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관계는 지혜롭게 피해야 하겠습니까. ●애정: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나치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26, 31일 길일. 28, 30일 주의.

용띠 | 희망적인 기운이 맴돌고

●운수: 힘들게 하던 문제를 매듭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단되고 침체되었던 일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금전: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종사자는 매상이 증가하니 신나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애정: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과 사랑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6, 27일 길일. 25, 30일 주의.

뱀띠 | 좋은 평가를 받게 해줄

●운수: 언젠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지금 하세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먼저 하는 자세가 좋은 평가를 받게 해줄 것입니다. ●금전: 투자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매매나 문서로 인한 이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애정: 가까이 있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으로 인한 즐거움도 크겠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5, 30일 길일. 26, 28일 주의.

말띠 | 중심을 잘 잡아야

●운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한 번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견줄 수 없게 됩니다. ●금전: 절약하는 것과 인색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까. ●애정: 미리 거절할 것이라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6, 31일 길일. 25, 27일 주의.

양띠 | 사랑이 쏠쏠 무르익고

●운수: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달리 먹으면 화가 복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의욕이 샘솟고 능력이 오르면 평소보다 더 많이 활동하게 되고 얻는 것도 크겠습니다.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애정: 사랑이 쏠쏠 무르익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로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7, 30일 길일. 25, 28일 주의.

원숭이띠 | 한 발 양보하고

●운수: 누군가와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발 양보하고 물러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 본시 남의 손에 쥐어 있는 떡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나아질 것입니다. ●애정: 서로가 이번에는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8, 31일 길일. 26, 29일 주의.

닭띠 |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운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금전: 희망이 보이는 대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웠던 것을 거두어 들일 수 있겠습니다. ●애정: 행동하기에 앞서서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29일 길일. 27, 30일 주의.

개띠 | 지출에 있어서 신중해야

●운수: 상대가 누구든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시 부딪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금전: 지출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 손을 떠나는 돈은 쉽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애정: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혼자 속상해하지 마세요. 표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30일 길일. 25, 28일 주의.

돼지띠 | 분위기에 휩쓸리다가는

●운수: 모임이나 회식자리에 갈 일이 있겠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다가는 과음이나 과식을 하기 쉬우니 잘 조절해야 합니다. ●금전: 새로운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 감정싸움은 자신은 물론이고 모두를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유리하지 않으니 피해가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27, 31일 길일. 26, 29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선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송은이의 회사, 다큐와 시트콤의 경계에서 바라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개그우먼 송은이가 세운 콘텐츠 제작사 '컨텐츠랩 비보'와 매니지먼트사 '미디어랩 시소'는 어쩔지 일반 회사들보다 좀 더 재밌고 엉뚱할 것 같다.

MBC TV는 오는 22일 '다큐플러스'에서 송은이의 회사와 임직원의 일상을 조명한다고 21일 예고했다. 정통 다큐멘터리 문법에서 벗어나 시트콤과 다큐의 경계를 오가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는 게 기획 의도다.

송은이와 김숙은 5년 전 팟캐스트 '비밀보장'을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연예인이 개인 방송을 하는 일은 드물었는데, 두 사람은 '우리가 그만두기 전에 없어지지 않을 방송국을 만들자'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이 방송은 결국 대히트를 했고, 방송사에서 역으로 라디오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는 수준에 이르렀다. 또 '밥블레스유', '전지적 참견 시점', '언니네 라디오' 등 많은 프로그램이 '비밀보장'의 아이디어에서 비롯했다. 요즘 송은이와



김숙은 방송가에서 가장 바쁜 하루를 보낸다.

송은이는 그사이 '유명 걸그룹'도 하나 키워냈다. 신봉선, 안영미, 김신영과 함께 결성한 '셀럽파이버'는 어느덧 활동 2년을 맞았고, 히트곡도 쏙쏙하게 보

유하고 있다. 송은이는 "안 가본 길은 가는 데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강조한다.

'다큐플러스-은이네 회사' 1회는 22일 밤 10시 40분 방송.

lisa@yna.co.kr

이소라 · 윤미래 · 태연 지원사격...크러쉬 새 EP '위드 허'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R&B 싱어송라이터 크러쉬(Crush)가 이소라 · 윤미래 · 태연 · 이하이 · 비비 등 여성 뮤지션들의 '초호화' 지원사격을 받은 새 미니앨범(EP)으로 돌아온다.

19일 소속사 피네이션에 따르면 크러쉬는 오는 20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새 EP '위드 허'(with HER)를 발매한다.

제목이 말해주듯 최정상 여성 뮤지션들이 총 5개 트랙 각각에 피처링으로 참여해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인다.

타이틀곡 '놓아줘'는 믿고 듣는 솔로 보컬리스트로 자리매김한 소녀시대 태연이 피처링했다. 크러쉬와 태연은 지난 2016년 1월 발매된 크러쉬 싱글 '잊어버리지마'에서도 합을 맞춰 음원 차트 1위를 휩쓴 바 있다.

'스텝 바이 스텝'에는 R&B 여제 윤미래가 참여해 크러쉬와 처음으로 협업을 펼쳤다.

kimhyoji@yna.co.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코로나 사태 여러분과 함께 이겨나가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중단치 않고 발행합니다. 두꺼운 얼음 밑에서 물은 끊임없이 흐르듯 모든 게 멈춘 순간에도 끊임없이 필수 정보를 전하고 한인들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광고주들로 인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께 도움을 호소합니다. 혹 여유가 되는 분들은 보스톤코리아를 도와주십시오.

보스톤코리아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로 체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Payable to : The Boston Korea

보스톤코리아도 어려운 광고주들을 돕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ditor@bostonkorea.com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벽벽과 창窓

벽벽이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관계나 일에 대해서 단절을 말해주기도 한다. 어쩌면 이해와 용서를 저버린 차가운 낱말처럼 들린다. 그 높이 쌓여진 담벼락에 창窓 하나 낼 수 있다면 막힌 숨이 탁 트일 듯싶다. 바로 그 창窓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기도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 또는 타 종교에서의 나눔일 것이다. 종교라는 이름을 들고 말하자면 끝이 없을 얘기이다. 엇그제 한국에서는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종교편향 인식 문제가 불교계의 강경한 대응으로 불어지자 이 대통령은 종교편향에 따른 문제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종교나 인종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으며 종교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특정한 종교로 말미암아 다른 종교인에 대한 비방이나 차별은 더욱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종교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관계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종교의 선택은 자유여야 한다. 부모의 종교에 따라 자식의 종교는 자연스럽게 결정지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자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마저 빼앗

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이 믿는 신앙 안에서 곧은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타인에게까지 행동으로 몸소 실천할 수 있다면 저절로 자신의 신앙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이다.

그 어떤 종교인들의 모습일지라도 '끼리끼리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정한 자신의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종교를 갖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만다.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종교인의 모습이면 좋겠다. '신神은 어디에...' 50년 동안 고뇌한 '빈자의 성녀(聖女)' 테레사 수녀도 내면세계에서는 '신의 부재'로 갈등을 겪었던 것을 보여주는 편지가 공개됐었다. 마더 테레사의 솔직한 고백이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온다. 9월이면 더욱 마더 테레사의 철저한 헌신의 삶이 가슴으로 다가오는 때이기도 하다. 마더 테레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어떤 '자신을 기쁘게 내어 주는 사람'이고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녀는 평생동안에 자주 인용했다.

내 것이 무조건 옳다고만 한다면 내 것 밖

의 또 다른 것은 틀린 것이 되고 만다.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단정해버리는 버릇이 있다.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의 구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과 인종이 살고 있다. 나와 다른 것들은 수없이 많다. 이렇듯 나와 다른 모든 것을 틀리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삶이면 좋겠다. 인류의 다양함 속에서의 어우러짐은 神의 창조 목적이었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의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너 무도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긴 하지만 가끔 이처럼 아이의 마음으로 눈으로 세상을 보면 좋겠다. 모두가 똑같은 얼굴로 마주한다면 얼마나 지루한 하루를 보낼까, 하고 말이다.

나 자신만을 위한 안전한 공간의 벽벽을 높이 쌓는다면 아마도 그 벽에 덮여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응달에서 병들지 않을까 싶다. 높이 쌓은 벽을 허물 자신이 없다면 그 벽벽에 창窓 하나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곳과 저 곳의 단절을 뚫고 그 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다. 내 것만 옳은 것이 아니고 네 것도 있음을 인정해줄 수 있는 여유와 네

가 있어 내가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나눔이면 좋겠다. 맑고 고운 햇살이 그 창窓을 통해 생명을 키우고 호흡할 수 있도록 말이다. 창窓은 바로 닫히고 쌓이고 막힌 것을 뚫어 주는 통로인 '소통疏通'인 것이다. 누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 맞이하는 날이면 좋겠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내가 당당하면 굳이 다른 이의 것을 트집 잡아 마음 상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말이다. 그 어떤 종교를 떠나서 삶을 나눌 수 있고 그 삶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음이 참 행복은 아닐까 싶다. "기독교인이 절에 들러 스님과 인사를 나누며 합장을 하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기독교인이 절에 들어갔다고 해서 밖에 나올 때 승복이라도 입고 나오는가 말이다. 사람의 말은 역할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것을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사명'이나 '소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어떤 특정한 나의 종교를 강조한 나머지 다른 종교인들에게 생각 없이 던지는 날카로운 상처의 말에 대해서는 무어라 말할 것인가. 너와 내가 다른 것을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나눔이길...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K 관한 단상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드를 향한 찬란한 문화인바. 이제 K아트의 예술을 넘어섰고 의료와 여행까지 확장되었다. 열기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삭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K는 오래전부터 익히 들어온 철자이다. 왕년 편지나 수필의 첫머리 자주 나왔다. 영어 아니설로 들어갔는데 K 형이니, K 시市로 시작하곤 했던 거다. 교과서에 실렸던 수필 그랜드캐년도 그랬다. 천관우 선생이 보여준 편지형식이다. 'K형, 황막의 미개경 애리조나에 와서 이처럼 조화의 무궁을 소름끼치도록 느껴보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랜드캐년이라면 장대함마저 넘어섰다. 나야 수박 겉핥기였는데, 감탄사만은 절로 흘러나왔던

기억이다. 그랜드캐년은 이미 세계 문화유적지로 등재되었다.

한국에도 명산名山이 수도룩하다. 금강산과 백두산이다. 어디 그 뿐이라. 한라요, 설악이고, 지리산도 있다. 유려한 K 마운튼이라 해야겠다. 카톡을 통해 넘어온 사진들을 봤다. 바이러스 때문일텐데, 모두 산행에 열심인바. 피난처요 안식처로 한라산이요, 설악산을 택했다고 했다. 가을과 어우러져 절경일게다.

삼각산, 북악과 인왕산도 빠지지 않는다. 북악과 인왕은 서울 한양도성을 감싸고 있다. 근래에도 성개축도 끝났다고 했다. 이제 서울을 두른 성곽은 K 성곽이라 해야 할터. 때맞춰 북악산이 개방되었다. 시인 황지우가 읊었다.

잘 짜맞춘 성곽이
역사의 긴 문장이 되고
이렇듯 위업이 되었음에라
(황지우, 북악산 개방에 부쳐 중에서)

아쉽다면 아쉬울 수도 있다. 서울 한양도성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혹시 K문화는 등재되는 건 아닐까. K컬처라 이름짓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대단한 문화장르가 될테니 말이다. 그런데, BTS 군대 문제는 해결되었나? 나 역시 아니설로 K를 쓴다. K형인 거다.

지혜는 유산遺産같이 아름답고
(전도서 7:11)



일터 동료가 물었다. K팝에 대해 알고 있느냐? 그의 질문인데, 아이가 한창 BTS그룹에 빠져있다고 했다. 한국어 공부에 열심이라고 덧붙였다. 내가 알 리가 없다. K팝은 이미 우리 아이도 알지 못하는 흘러간 가요다. 나야 나훈아 노래

라면 한두곡 흥얼거릴 수는 있다. 두어소절 뿐이지만 말이다.

K팝 뿐이라. K가 붙는 건 모든 게 한국이다. K푸드, 리그, 드라마, 무비, 뷰티, 패션, 뮤직, 뭐든 상관 없다. 한류라 하던데,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단다. K브랜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성형외과

성형에 대한 불안한 마음, 휴람이 책임지겠습니다!

휴람 성형이벤트 지금 이용해보세요!

상담 · 예약 · 안전하고 퀄리티 높은 수술 ·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보호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의료 서비스 휴람

상안검 or 눈썹거상술 187만원 154만원~	하안검 + 지방재배치 187만원 154만원~	안면거상술 +목거상 880만원 660만원~	HURAM 성형이벤트 아름다움을 만드는 곳		
이마 거상술 495만원 330만원~	코 성 형 363만원 264만원~	지방이식 +PRP 330만원 220만원~	가슴성형 660만원 550만원~	지방흡입 220만원~	이물질 제 거 110만원~



“ 정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디테일
환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체크하는 디테일
풍부한 경험으로 올바른 개선책을 찾아내는 디테일
수준 높은 세포치료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디테일
안정적인 마취를 통해 더 좋은 수술결과를 이끌어내는 디테일 ”

휴람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백재성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바노바기성형외과	윤성연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윤성연외과	노성훈 대표원장 카톨릭의과대학 졸업 노상훈성형외과	강공규 대표원장 연세대 석/박사 졸업 YK성형외과
김태현 대표원장 의과대학 졸업 라폴성형외과	최원혁 대표원장 경희대 의과대학 졸업 드림라인클리닉	정경인 대표원장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세너지성형외과	박재현 대표원장 연세대 의과대학 졸업 리본뷰티메디칼그룹



김수남
하의의료사업담당

617.949.1766

카카오톡 010.3469.4040 / ID: huraamkorea
huraam@huraam.kr / www.huraamkorea.com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분비학 역사에 한 획을 긋다 갑상선의 발견과 치료의 역사

이번 주 휴람에서는 갑상선의 치료와 역사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의학 역사 가운데 본격적인 갑상선 치료의 역사는 짧은 편이다. 하지만 갑상선학은 내분비학의 발전 과정과 맥을 같이 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다. 고대 갑상선질환에 대한 다양한 기록과,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급속도로 발전한 갑상선 치료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고대부터 시작된 다양한 갑상선질환의 기록 갑상선을 뜻하는 ‘Thyroid’ 는 방패를 뜻하는 그리스어 ‘Thyreos’ 에서 유래되었다. 목 한가운데에 마치 방패 모양처럼 생긴 기관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갑상선은 내분비기관 중 호르몬을 만드는 가장 큰 기관이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존재감이 미미했다. 하지만 갑상선질환에 대한 기록은 고대 중국, 이집트 문헌이나 그림에 기록되어 있어 아주 예전부터 갑상선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상당수 있었을 것

으로 예측한다. 먼저, 가장 오래된 기록은 기원전, 고대 중국에서 전해진 내용으로 갑상선 종양이 경부에 발생하는 흔한 질환이라고 기록됐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과도한 객담으로 인해 갑상선 종양 환자가 목이 부었다고 생각해서 이를 ‘기관지류’ 라 불렀다는 기록도 있다. 히포크라테스 또한 갑상선 종양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바 있는데, 이는 눈이 녹은 물을 마셔 경부 분비샘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해부생리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탓에 갑상선질환을 오해한 것이다. 중세에 들어서는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갑상선질환에 대한 자세한 관찰과 치료법이 개발되었지만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당시 갑상선 결절이 흔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몇 년 전, 미국 하버드대와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으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에서도 갑상선질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인물의 얇은 머리카락과 노란빛의 피부, 부은 손가락, 부어있는 목으로 보아 작품 속 인물이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였을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한 것이다. 갑상선질

환의 발견과 수술의 역사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질병으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부에 들어서면서다. 처음에는 갑상선기능항진증을 심장질환으로 여겼으나, 이후 신경학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심장이 아닌 신경학적 질환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은 항진증보다 뒤늦게 알려졌다. 1850년 켈링 박사는 갑상선이 없는 동시에 대뇌의 발달장애가 있는 두 명의 소녀를 통해 갑상선 소실과 관련된 질병이 있음을 발표했다. 영국 런던의 킹 박사는 갑상선이 응급 시 생명 유지에 중요한 물질(호르몬)을 생성하여 혈류로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며 처음으로 갑상선의 내분비 기능에 대해 언급했다. 갑상선 수술의 역사는 19 세기에 들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갑상선 수술의 아버지라 평가받는 스위스의 ‘에밀 테오도어 코허’ 박사는 갑상선절제술의 임상시험을 통해 초기 100례에서 사망률이 12%에 달했지만, 500례에서 사망률을 0.2%로 낮추는 쾌거를 이뤄냈다. 그는 생리학, 병리학, 갑상선 연구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1909년에 외과의사로서 최초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다. 20세기에 들어서며 갑상선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초음파 기술과 미세침흡인검사 등 과학

의 발달로 인해 갑상선질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 되었다. 1940년에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갑상선 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초기 갑상선 수술은 목 부위를 절개한다는 것만으로도 의학계의 외면을 당할 만큼 위험한 수술로 평가되었지만 수술 환경의 개선과 로봇 수술, 수술 후 다양한 치료법 등을 통해 현재 가장 안전한 수술 중 하나로 정착되었다

글 김정주 / 참고자료 안지현, ‘갑상샘 질환에서 치료의 발전’, (대한의사학회, 2008)

“역사 속 질병 갑상선”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한국제회법인

호연회계법인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WiFi 내장
Compact size
Settop Box \$60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볼로 변경)

*전상품 1년 약정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지금 전화하세요 !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99)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한국의 한 출판사에서 ‘미국에서 확실히 부자되기’ 라는 필자의 책을 인쇄한 후 한국 대형 서점에도 판매하자고 제안했지만, 필자는 거절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제대로 하는 주식투자’ 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여행, 운동경기, 외식, 등 모든 일상적인 생활이 중단된 상태이다. 채택 근무 등으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런 무료한 시간에 재미나는 일로 많은 사람이 주식투자로 몰리고 있다. 회사 주식을 사고팔기에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식시장이 투자하는 곳이 아니라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도박장’ 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금융위기 이후 2010년에는 미국에서 개인이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 하는 사람이 약 10%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는 19.5%로 두 배로 늘어났다.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규모(Volume)가 25%까지 차지한다고 하니 요즘 얼마나 주식투자에 열광하고 있는지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투자 열기는 중국이나 한국에 비교하면 ‘새 발의 피’ 다

중국 개인 투자자의 규모는 주식시장의 80%를 차지한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한술 더 떠서 무려 84%가 개인 투자자라고 한다. 직장인에게 평생직장 개념은 이미 사라졌고 안정된 수입원이 되지도 않고 미래 역시 불안하다. 젊은이들은 직장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너도나도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기에 빔을 내서까지 투자한다. 속도가 매우 빠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다.

도박하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유혹을 뿌리치기는 어렵다. 과도하게 마신 술 때문에 아침마다 괴롭고 후회하지만, 또 다시 술을 마신다. 술을 마시면 바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중독자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술을 끊을 수 있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런 심리로 주식에 투자하기에 기업의 가치 등을 고려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다. 하루에 오르고 내리는 주가가 격만

이 최대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지도 미국의 주식 열풍에 대해 언급(Individual-Investor boom reshapes U.S. stock market, Asia is where individual investors truly dominant, Alexander Osipovich, WSJ, August 31, 2020)하며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고 고위험과 초단타 매매에 열중하고 있다고 한다.

주식시장의 도박화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잘못만은 아니다. 금융기관 역시 누구나 주식투자를 쉽게 할 수 있다고 부채질한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사는 끊임없이 미래 시장과 주가를 예측한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가 증권사의 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개별적인 회사 투자로 은근히 투자 대박을 기대한다. 그러나 2004년 이후 S&P 500회사에서 ¼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했거나 아니면 파산했다. 500대 기업에서 25% 사라진 것이다. 최근 세계적 석유 회사인 엑손모빌이 다우존스에서 92년 만에 쫓겨나는 신세

가 됐다. 이처럼 회사의 운명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오랜 기간 보유해도 나의 소중한 돈이 종잇조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식으로 도박하는 분위기다. 필자의 책에서 ‘제대로 하는 주식투자’ 를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에 사는 한인은 한국보다 투자하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고 주식투자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개별적인 회사나 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일반 투자자가 인덱스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성공하는 투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이다. 2009년부터 2019년 말까지 11년 동안 주식시장(S&P 500 Index)은 연평균 14% 이상을 창출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주식투자로 돈 벌었다는 소문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 속 내용은 아무도 모른다. 주식시장 전체에 꾸준히 투자하면 주식시장이 창출하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시로 변동하는 주식시장에도 근심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18세 풍월주風月主 춘추공春秋公(4)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당시 촉망받던 김춘추가 왕이 될것을 감지한 김유신은 그와 결탁하기 위하여 계략을 하나 꾸렸는데 멋지게 성공하였다. 다름아닌 바로 자신의 동생과 김춘추를 결혼시키는 작전이었다.

먼저 삼국사기에 보면, 제6권(신라본기 권6, 661년)은 문무왕이 왕위에 오른것으로 시작한다. 이름과 부모, 그리고 출생내역을 서술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문무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법민으로, 태종왕의 맏아들이다. 어머니는 김씨 문명왕후로 소판 서현의 막내딸이며 유신의 누이이다. 언니가 서형산 꼭대기에 올라가 오줌을 누니 온나라에 가득 퍼지는 꿈을 꾸었다. 깨어나 동생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동생은 비단치마를 주고서 꿈을 샀다. 며칠 후 유신이 춘추공과 축국蹴鞠을 하다가 춘추의 옷고름을 밟아 떨어뜨렸다. 이에 유신은 자기 집으로 데려가 꿰매자고 청하였고, 술상을 차려 놓고 조용히 보희寶姬를 불러 꿰매게 했다. 언니는 일이 있어有故 나오지 못하고 동생이 나와서 꿰맸다. 열은 화장과 가벼운 옷차림을 하였는데, 빛이 곱게 사람을 비추는 모습이였다. 춘추가 보고 기뻐하여 바로 혼인하자고 요청하고는 곧

예식을 치렀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법민法敏이다. 왕비는 자의왕후慈義王后로 파진찬 선품의 딸이다. 법민은 평소에 맵시가 영특하고 총명하여 지략이 많았다. 영휘永徽312) 초에 당나라에 갔는데, 고종이 태부경의 관작을 주었다. 태종 원년(654년)에 파진찬으로써 병부령이 되었다가 이극고 태자가 되었다. 현경顯慶313) 5년(660년)에 태종이 당나라 소정방과 함께 백제를 평정할 때 법민이 종군하여 큰 공을 세웠다. 이때에 이르러 왕위에 올랐다.”

삼국사기의 기록으로만 보면 아무런 계략이나 극적인 반전도 없이 서술되어 있다. 태종 무열왕의 비가 된 문명왕후(문희)가 언니(보희)가 꾸는 꿈을 비단치마를 주고 샀고, 한편 김유신은 김춘추와 자신의 집 가까이서 축국을 하다가 옷고름을 밟아 떨어뜨렸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꿰매자고 데리고 와서 보희를 불렀는데, 무슨 일이 있던 보희 대신 문희가 나왔는데, 그 아름다움에 반한 김춘추가 바로 청혼을 하여 결혼을 하고 법민을 낳았다. 별로 드라마틱하지 않다. 그런데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참고한 화랑세기의 기록과 삼국사기와 화랑세기를 함께 참고하며 저술한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단순한 삼국사기의 기록을 뛰어넘어 그들의 만남과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한편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한편 신채호가 쓴 ‘조선상고사(1931)’에 보면 김유신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지략과

용기가 있는 이름난 장군이 아니요, 속이 영글하기 짝이 없는 정치가로서 그가 이룩한 평생의 큰 공로는 전쟁에 있지 않고 음모로써 이웃 나라를 어지럽힌 자” 라고 기술되어 있다. 단 재가 이렇게 김유신을 증오스럽게 평가한 이유는 이민족인 당나라를 끌어들여 동족의 국가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케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권모술수의 모략가적 기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왕이 될 김춘추와 결탁하기 위하여 동생을 춘추와 혼인시킨 계략이라고 하였다. 무엇보다 단재 신채호는 김유신이 금관가야에서 투항해온 혈통이라 신라에서 출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지왕의 손자이며 차기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김춘추와 손잡기를 원했으며, 그 작전이 성공하여 신라의 실권을 잡고 나서 이를 발판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런데 ‘금관가야에서 투항해온 혈통이라 신라에서 출세하기가 어렵다’ 는 대목에서는 선듯 동의하기가 어렵다.

김유신의 부모는 각각 김서현과 만명부인이다. 먼저 모계를 보면, 만명의 부모는 속흥종과 만호태후이다. 속흥종은 임종(진흥왕의 아버지)과 금진낭주 사이에서 태어났다. 만호태후는 처음에 동륜태자와 혼인하여 백정(진평왕)과 백반, 국반(진덕여왕의 아버지)을 낳고, 동륜이 아버지 진흥왕의 후궁인 보명궁주의 치맛폭을 풀려고 월담하다가 개에게 물려서 ‘개죽음’ 을 당한 뒤 속흥종과 결혼하였

다. 즉 김유신의 외조모 만호는 진평왕의 어머니이다.

그리고 부계를 보면 서현의 부모는 김무력과 아양공주이다. 김무력의 아버지가 가야의 구충(구형)왕으로 법흥왕 때 신라에 항복하여 진골의 신분을 얻었다. 그리고 서현의 어머니, 즉 김유신의 조모 아양공주는 진흥왕과 사도왕후의 딸이다. 그리고 화랑세기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대표적인 계보를 보면, 먼저 예악藝樂을 중시했던 윤상인파는 7세 풍월주 설화랑이 중심이 되어 형성되었고, 무武를 수련하며 정正과 의義를 따르는 국선인파는 8세 풍월주 문노를 추종하는 낭도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혈과 골의 통으로 이루어진 계파는 대원신통과 진골정통 그리고 가야파가 있었는데, 가야파의 인맥姻戚도 대원신통이거나 진골정통이었다. 즉 김유신의 아버지 서현은 어머니가 아양공주로 사도왕후의 딸이기에 대원신통이다. 그리고 김유신은 어머니가 만명공주로 만호태후의 딸이기에 진골정통이다. 그래서 김유신은 왕위 계승 서열에 있지는 않았지만 성골이 없어진 당시 이미 최고의 신분에 있었다. 즉 ‘출세를 하기 어려워서’ 라기보다는 출세를 ‘더하기’ 위해서 김춘추와 결탁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660년에 상대등에 올랐다.

312) 당나라 고종의 연호로 650년~659년에 해당한다. 신라진덕여왕 4년부터 태종무열왕 2년까지이다.

313) 당나라 고종의 연호로 660년~661년에 해당한다. 신라태종무열왕 3년부터 7년까지이다.

평화통일 사행시 모토문구 공모전

응모 방법 : '평화통일'로 사행시, 혹은 평화통일을
모토로 한 문구 (예 :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
2개 다 응모가능

응모 기간 : 10/24 - 11/11

당선자 발표 : 11/20 보스톤 코리아

상금 : 1등 1명 \$100, 2등 2명 \$50, 3등 35명 \$30

문의 : 서영애 준비위원장 (978.807.1622)

보낼곳 : bostonnuac2020@gmail.com
(성함과 주소 명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보스톤 협의회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oston Chapter



NAMU • 나무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대통령 훈장 수훈/15년 이상의 경력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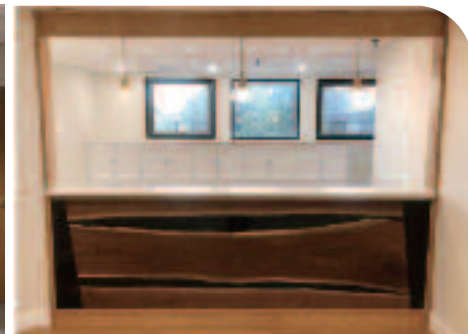
- 주방, 욕실, 방,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 집, 상점 레노베이션
- 커스텀 캐비닛, 바닥, 데크
- 원목 테이블, 가구

WHY NAM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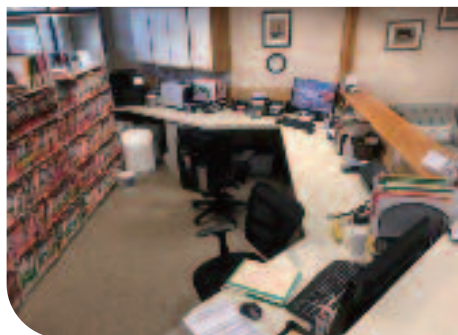
- ✓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 ✓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 ✓ 철저한 시간 약속과 빠른 공사



BEFORE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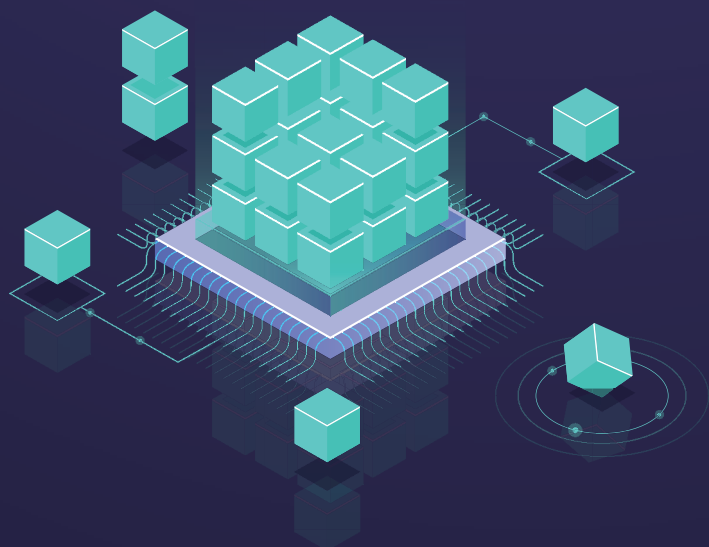
무료
견적상담

www.namuma.com
info@namuma.com /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 전지역, NH 일부지역 공사)

PHOENIX BUSINESS COMPUTING

Data driven Workflow Management Solutions from Experts
데이터를 사용한 업무 관리 프로그램 전문회사



Lead Architecture: Taewon Jin
taewonjin@phoenixbc.com
603. 205. 6679

Phoenix Business Computing, LLC has been building, supporting, and consulting hundreds database related projects for top enterprises and mid-size companies in US in the past 20 years.

Please contact us if you have:

- A project that has been stalled due to:
 - Not clearly defined scope and no project leadership support
 - Budget constraints (expensive to hire outside vendors)
 - Lack of internal database process experts or no internal support staffs
- An immediate need to support:
 - Existing applications, enhancements, or adding new feature
 - Sharing data from various sources and different data formats
 - Automation of data manipulation, integration, and delivery
 - Dynamic reports and timely aggregated data summarizations.
 - Scheduled jobs
- A new project that will automate your workflow management process by sharing data and decisions among people involved.

No charges if no values delivered to your company

피닉스 비즈니스 컨설팅은 지난 20여년간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수백가지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젝트를 컨설팅에서부터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업무지원까지 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업무를 원하시면 저희를 찾아주세요: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프로젝트가 진전이 없는 경우
 - 업무 범위가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았고 리더십의 지원도 없을 때
 - 외부 전문 데이터베이스 회사를 고용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때
 - 사내 데이터베이스전문가 또는 지원 직원이 없을 때
2. 당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지만 새로운 기능을 더하거나 보강할 때
 - 다양한 소스와 다른 데이터 포맷 상태의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할 때
 - 데이터 조정, 통합 그리고 발송을 자동화 하고자 할 때
 - 빠른 보고와 필요한 시기에 집계된 데이터 요약
 - 예정된 작업들
3. 데이터 공유와 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의한 작업 관리 절차를 자동화할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귀하의 회사에 특별한 도움이 되지 못할 경우 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